트렌드 대응·킬러 콘텐츠 부재…청년 정착 못하는 충장로

100년 전통 충장로상권 '광주의 심장'이 식어간다

〈4〉'청년 없는' 젊음의 거리

고령화된 상권 구조 한계 속
단발성 청년 지원사업 반복
잇단 헛발질에 혈세만 낭비
지속 가능한 대책·전략 실종

한때 '젊음의 거리'로 불리던 광주 충장로 상권이 상인들의 트렌드 대응 역량 부족과 콘텐츠 부재가 맞물리며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겨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는 상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 상인 모시기'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이 종료되면 충장로를 떠나는 사례가 반복되며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용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각종 사업 역시 '헛발질'을 반복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토 없는 정책 추진에 혈세 낭비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5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계획서를 통해 "충장로 상가의 대표자 연령대는 50~60대가 70%이상을 차지하며, 고령화로 인해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며 "상인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충장로 상권 구성 자체가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콘텐츠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지하상가의 경우 의류·잡화 등 상품군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며, 중심 상가 역시 어느 상권에나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다수라 젊은 고객을 모을만한 특색있는 점포나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가 나서서 청년들을 끌어들이려 했던 시도들은 줄줄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동구는 2023년부터 7억1260만원을 들여 '충장 마스터로드' 사업을 시행, 지역 청년과 충장로 명장·명인을 연결하는 '청년-장인 커넥티드' 사업을 펼쳤지만 청년 상인 단 3명을 육성하는 데 그쳤다. 이들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서울 동대문 등 타 상권으로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부터는 '충장마을백화점'으로 명칭을 변경해 신규 창업자를 모집, 점포당 15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입점 창업자는 5명에 불과했다. 한 예비 창업자는 희망 점포의 임대료 조정에 실패해 창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2021~2024년에도 6억7000여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비와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총 20개 점포 중 1차 5곳, 2차 7곳 등 12곳이 남는 데 그쳤다.

젊은이들을 겨냥해 광주시가 37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K-POP 스타의 거리'는 상인들 사이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동구가 만든 'K-POP 공유카페'는 저작권 위반 논란에 휘말리는 등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동구는 2억4400만원을 투입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일본 후쿠오카 등 국내외 선진지 연수, 명사 초청 강연 등을 했지만 체감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 개발사업에 걸었던 기대도 수포로 돌아갔다. 시너지타워가 추진한 '몽키터미널'은 한때 청년 유입을 이끌어낼 '구원투수'로 주목받았지만, 사업 좌초의 여파로 일대의 공실이 확산되며 오히려 슬럼화를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원도심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속 가능한 상권을 만들기는커녕, 지자체부터 단발적인 예산 투입만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발·한시적 사업을 반복하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들이 자립·자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충장로는 다른 구도심 상권과도 대비된다.

대전시 중구 은행동 상권의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 없이 민간 주도로 성장했음에도 청년 창업자들의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청년 방문객도 효과적으로 끌어모은 사례로 꼽힌다.

이곳에서는 지역 베이커리 브랜드인 '성심당'의 인기가 확산되는 것을 활용, 성심당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해 상인회 차원에서 인근 카페에서도 성심당 빵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이에 맞물려 개성을 앞세운 청년 창업자들의 유입이 이어지자, 행정은 인근 야구장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 코스를 만들고 '베이커리 특화 거리 조성'을 추진하는 등 자연스럽게 인기가 이어지도록 도왔다는 것이 대전시 중구의 설명이다.

유사 사례는 충장로 인근 동구 동명동에서도 확인된다. 노후 원도심이던 동명동에 신규 개업한 카페가 잇따라 들어서며 청년들이 몰리자, 동구는 '커피산책' 행사를 개최하고 동네의 특성이 담긴 굿즈를 개발하는 등 '커피 특화 거리'로서 정체성을 만들었다. 이같은 특색이 청년들에게 강하게 전달돼 청년들 사이에서도 '꼭 가볼만한 곳'으로 입소문을 탔다는 것이다.

주승일 충장상인회 회장은 "충장로를 활성화하고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청년 상인과 이용객 유입이 필수적인데, 단발성 사업만 반복해 봤자 청년들은 모이지 않고 체감 효과도 없다"며 "충장로가 다시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상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청년을 끌어올 만큼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5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K-POP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전남 학생 수 1년 새 6771명 감소…초등생 급감

도교육청,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전남 지역 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며 도내 전체 학생 수가 1년 사이 7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수 감소가 전체 내림세를 주도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전남지역 학생 수가 전년 대비 6771명 감소한 가운데 유·초·중·고등학교 학급 수를 총 1만664학급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도내 전체 학생 수는 지난해 18만3369명에서 올해 17만6598명으로 6771명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 수가 4480명 감소하며 전체 감소 폭의 66%를 차지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맞춰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 여건을 보장하고자 유치원 1142학급, 초등학교 5023학급, 중학교 2196학급, 고등학교 2303학급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이 26학급, 초등학교가 81학급, 중학교가 11학급 줄어든 수치다. 반면 고등학교는 4학급이 증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실제로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전년 대비 0.6명 줄어든 평균 14.3명 수준까지 낮아졌다. 중학교는 20.9명, 고등학교는 19.6명 수준이다. 교육청은 이러한 급당 학생 수 감소 추이를 고려해 개별 맞춤형 교육과 학생 성장 단계별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도 학생 한 명의 성장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교육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면서 "향후 학생 수 추이와 교원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미래 교육에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전남 주말 최대 7㎝ 눈 내리고 강추위

이번 주말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7㎝의 많은 눈이 내리고, 광주·전남의 기온이 영하10도까지 떨어져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토요일인 7일 오후(낮 12시~오후 6시) 전남서해안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저녁부터는 광주와 전남서부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5일 예보했다.

광주와 전남서부지역에는 1~3㎝ 눈이 내리고, 전남 서해안에는 2~7㎝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8도로 예상된다.

7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2도에 머물겠고, 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1도로 추위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강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난방기를 사용할 때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도, 13일까지 인권 프로그램 사업 참여 단체 공모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 사회를 위한 인권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전남도는 오는 13일까지 '2026 민간단체 인권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할 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인권 관련 활동 실적이 있거나 지역사회에서 인권 증진 활동을 수행할 비영리 민간단체는 참여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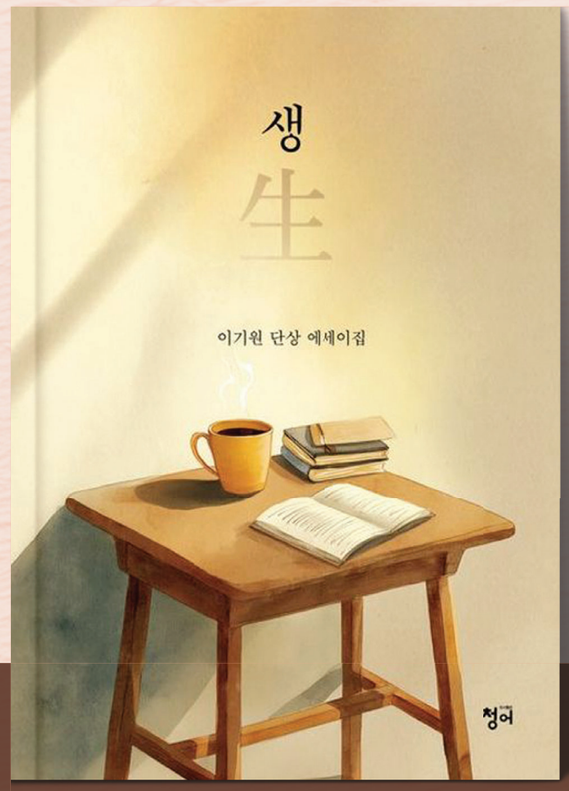
희망 단체는 ▲인권교육 ▲취약계층 인권 보호 ▲지역사회 인권의식 개선 ▲인권문화 확산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인권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남도 인권정책, 인권교육 사업과 연계해 확산·활용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설 성수품 밀수·부정유통 해경, 20일까지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전국 21개 일선 해양경찰서에서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점검해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이기원 단상 에세이집
312쪽 | 값 16,000원

生

누가 호박꽃도 꽃이냐고 묻길래 가장 실속 있는 꽃이라고 대답했다. 애호박은 개당 1천 원이 넘고, 황톳빛으로 물들인 채 노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연로한 호박은 개당 5천 원이 넘는다. 마누라 꽃이기도 한 노년의 호박꽃은 비록 찬란하진 않지만 실속파의 아름다운 꽃이다.

사랑의 프러포즈와 축하나 애도를 표할 때도 꽃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 꽃은 여인과 계절과 색깔과 향기를 아우르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뭇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물이 아닐까?

—본문 「꽃」 중에서

태어날 생(生)이냐,
살아갈 생(生)이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오롯이 보듬고 달린다.

이기원

1957년에 태어났다. 국문학을 전공했고 육군대학을 졸업했다.
18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 3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있다.
『바람 나그네』, 『회전목마 인생』, 『밥벌레의 행복』, 『이방인』, 『생(生)』 등을 펴냈다.

인터넷 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서점 판매 광주(충장서림, 영풍문고)
나주(종로서적), 목포(연산서적)
순천(중앙서점), 전주(영풍문고, 혁신문고)
익산(동아서점)